

개인보호구 · 성실한 안전교육 중소건설현장 무재해의 원천

주식회사 에스에스종합건설 12사단신병교육대 현장

하늘은 높고 들녘에 곡식은 풍성하기 그지없는 이 가을, 북의 핵실험으로 세계가 들썩이고, 국내에서는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능률한 대한민국 군인을 배출하는 12사단 신병교육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렁찬 소리는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나라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이상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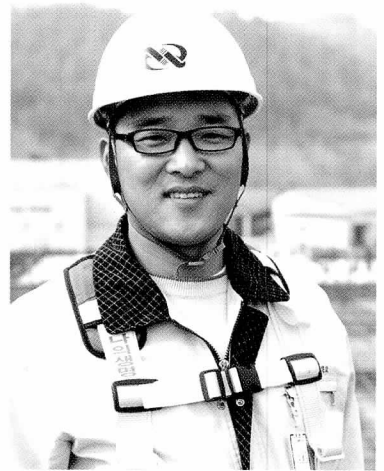
이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꾸며주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았다. 강원도 원통에 자리하고 있는 12사단신교대, 주식회사에스에스종합건설(이원희 현장소장)에서 무재해 시공이 한창이다. 지방 건설현장으로 산업재해의 온상이라고 일컫는 중소건설현장인 이곳은 개인관리로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본다.



개인보호구만 착용해도 중대재해는 없다 ■■

12사단 신병교육대 현장은 중소건설현장이지만 안전에 있어 어느 현장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다. 여기에는 과거 이원희 소장의 사연이 있다. 현장소장직으로 첫 현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협력소장이 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해 머리가 다쳐 사망 한 일이다. 결국 가장을 잃은 재해자 가족은 고통 속에 파괴되었고, 이를 보아야 했던 이원희 소장은 재해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한다. 개인보호구 하나만 착용했더라면 이러한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뼈저리게 아파했던 지난 사고는 이원희 소장으로 하여금 안전 소장이 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10년 전의 산업안전의 수준의 근로자를 이끌고 가야하는 지방 건설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보호구 100%와 안전교육 자율적 참여라는 것으로도 커다란 성과라고 그는 말한다.



▲ 이 원 희 현장소장

한예로 안전교육시간을 음료수 먹는 시간으로 여겼던 근로자들, 안전모 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들 이었다. 이들이 오늘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이고 안전교육시 왜 받아야하는지 알고 있다. 이 것 만으로도 착공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풍부한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성과면에서는 그 이상이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팀장제 운영으로 무재해 준공을 향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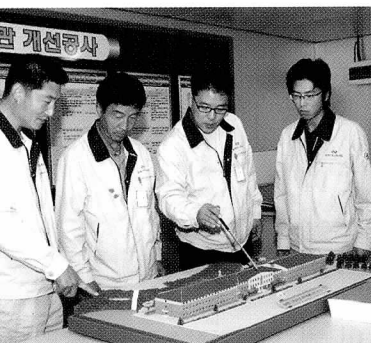
12사단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은 총 176미터이고 폭이 25미터로 3층 철근콘크리트 조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각 구간별 팀장을 두어 해당 팀장이 작업시 작전, 중, 후 안전점검 등을 관리한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으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지만 각 팀장들이 안전관리자가 되어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현장순찰을 하고, 위험요소를 미리 발굴하여 제거한다. 이러한 점검은 하루에 3번 이루어지는데 아침조회 이후와 점식시하 이후, 그리고 퇴근이전에 시행된다. 이러한 안전점검은 관리감독자인 팀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현장소장이 재확인하는 체제를 갖추으로써 무재해 준공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안전관리비 100% 사용하는 현장 ■■

중소건설현장이 안전이 낙후되고, 재해의 온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해당 근로자들도 상상을 못할 정도의 낙후된 안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들도 안전에 있어 무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곳 에스에스종합건설에서는 안전관리비 100% 사용으로 안전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본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희 소장은 대부분의 지방건설업체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법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업체 대표자, 협력업체 소장에 까지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제정되어야 하고, 관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안전관리비 사용 정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재해 준공을 위해 ■ ■

앞으로 준공까지 1년하고 한달이 남았다. 지금까지 단한건의 사고도 없었지만 앞으로 사고는 없어야 할 것이다. 개인보호구 착용과 안전교육은 어느 수준으로 정착되었기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포상제도 등을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안전활동에 참여시켜 무재해 준공을 이룩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희 소장은 「모두가 가정에 좋은 아빠, 가장들입니다. 가장이 다치면 가족에게 죄를 짓는 일임을 유념하여 항상 안전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말을 맺는다. 

〈최종덕 기자〉